

# 코로나19의 확산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 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 머리말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19(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0년 3월 26일 기준으로 200개의 국가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보고된 감염 환자는 465,915명,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21,031명으로 그 확산 추세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감염병(pandemic)을 선언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2)</sup> 많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많은 임금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더 이상 노동할 수 없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18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2천5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sup>3)</sup>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따라

1)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COVID-19) outbreak situation,"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2) NPR(2020.3.11), "Coronavirus: COVID-19 Is Now Officially A Pandemic," WHO Say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20/03/11/814474930/coronavirus-covid-19-is-now-officially-a-pandemic-who-says>

3)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2020.3.18), "Almost 25 million jobs could be lost worldwide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미국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배경 : 코로나19의 확산과 미국 경제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68,440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던 중국의 공식 확진자 수보다 높은 수치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식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다.<sup>4)</sup> 물론 이는 공식 확진자 명단에 기반을 둔 것이며 코로나19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욕 주의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뉴욕 주에서만 확진자 수가 이미 25,000명을 돌파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아직 낮은 편인 캘리포니아 주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sup>5)</sup>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이 호흡곤란이기 때문에, 산소호흡기가 코로나19 치료에 중요한 자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뉴욕 주에서 산소호흡기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2인이 이를 공유하는 등 산소호흡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sup>6)</sup> 또한 연방정부

as a result of COVID-19, says ILO,”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738742/lang--en/index.htm?fbclid=IwAR0oUEmYO96if0TPzy2LAzAod0MxzukiIdoqiX0wGBlpDEqZKQ07WONaAng](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738742/lang--en/index.htm?fbclid=IwAR0oUEmYO96if0TPzy2LAzAod0MxzukiIdoqiX0wGBlpDEqZKQ07WONaAng)

4) CBS News(2020.3.26), “Coronavirus updates: U.S. surpasses China with most cases worldwide,”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cbsnews.com/live-updates/coronavirus-news-latest-2020-03-26/>

5) CBS News(2020.3.24), “Cuomo slams federal inaction as coronavirus desperation mounts: ‘You pick’ who’s ‘oing to die,’”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cbsnews.com/news/andrew-cuomo-says-trump-administrations-inaction-will-decide-who-dies-2020-03-24/>

6) CNN(2020.3.26), “New York will allow two patients to share a single ventilator,” <https://www.cnn.com/2020/03/26/health/splitting-ventilators-coronavirus/index.html>

차원에서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와 벤텍 라이프 시스템즈(Ventec Life Systems)가 꾸린 공동 벤처기업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천 억 원)를 지불하고 즉각적으로 산소호흡기 20,000개, 그 이후 60,000개를 추가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계약이 확실하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지지부진한 대응은 위와 같은 의료자원과 인력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sup>7)</sup>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불필요한 외출의 자제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작업장 안전 차원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출근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수적인 조치들로 인해 다수 기업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 정부들은 비필수 사업장(non-essential business)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영(limited operation)하도록 하거나 사람들이 다수 모일 수 있는 식당이나 바 등에 대해서는 포장 또는 배달을 제외하고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때의 '필수' 사업장은 식료품점, 음식제조업체, 의료 관련 업체, 물류 업체, 건설 업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8)9)</sup> 그러나 운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국 등 여러 국가에 위치한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sup>10)</sup> 한 사례로, 미국의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모터스는 북미 지역의 공장을 모두 닫고 6,500명의 정규직 인력들에게 모두

7) The New York Times(2020.3.26), "After Considering \$1 Billion Price Tag for Ventilators, White House Has Second Thought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nytimes.com/2020/03/26/us/politics/coronavirus-ventilators-trump.html>

8) USA Today(2020.3.24), "5 maps show how states differ on protecting Americans against coronaviru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usatoday.com/in-depth/news/2020/03/24/coronavirus-state-measures-contain-disease-vary-widely/2897975001/>

9) The Washington Post(2020.3.28), "Work on region's big projects continues amid coronavirus, with construction an 'essential' business," Retrieved on March 28th,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trafficandcommuting/work-on-regions-big-projects-continues-amid-coronavirus-with-construction-an-essential-business/2020/03/28/e4af8b38-6dfd-11ea-a3ec-70d7479d83f0\\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trafficandcommuting/work-on-regions-big-projects-continues-amid-coronavirus-with-construction-an-essential-business/2020/03/28/e4af8b38-6dfd-11ea-a3ec-70d7479d83f0_story.html)

10) McKinsey(2020.3.25), "COVID-19: Implications for busines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risk/our-insights/covid-19-implications-for-business>

강제휴직(furlough)을 통지하고 임금의 75%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sup>11)</sup>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들의 소비 수준, 특히나 여행 및 여가 등과 관련한 지출 규모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기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들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sup>12)</sup>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 경제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며, 이미 미국이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주장마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앤더슨 경영대학(UCLA Anderson School of Management)이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이미 2019년 9월부터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급감하고 있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이 결정타로 작용하여, 2020년 1분기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에는 6.5%의 마이너스 성장이, 3분기에는 1.9%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여름에 멈출 것이라는 가정하에 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4%로 예측된다.<sup>13)</sup> 여기에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더욱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하락세를 오히려 회복하고 있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sup>14)</sup>

11) The New York Times(2020.3.19), "G.M. Suspends Production Indefinitely and Cuts Paycheck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nytimes.com/2020/03/26/business/stock-market-rises-coronavirus.html>

12) CNBC(2020.3.17). "I don't see how we're going to avoid having a recession,' says former Fed advisor as coronavirus outbreak persist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cnbc.com/2020/03/17/coronavirus-us-may-not-be-able-to-avoid-a-recession.html>

13) The LA Times(2020.3.16), "U.S. economy is now in recession, UCLA Anderson Forecast say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0-03-16/us-economic-recession-coronavirus-ucla-anderson-forecast>

14) CNN(2020.3.26), "US stocks surge despite the worst jobless claims data in history: March 26, 2020,"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cnn.com/business/live-news/stock-market-news-today-032620/index.html>

## ■ 코로나19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은 미국 노동시장에 급격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실업자 수가 약 328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노동부가 해당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이는 미국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실시한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위기를 맞았던 1982년 10월 초의 69만 5천 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경기침체 기간인 2009년 3월 말의 66만 5천 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sup>15)</sup> 이는 단지 1주일만의 수치이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반적인 악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2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지난 50년간 최저 수준이었다. 하지만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6월 말까지 약 4천7백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예상하였는데, 이는 실업률 약 32%를 의미하며, 이 수치는 1933년 대공황 시기의 실업률인 2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sup>16)</sup> 특히 관광업(hospitality industry)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80~90%의 노동자들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7)</sup>

위와 같은 악영향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는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특히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된

15) CNN(2020.3.26), "Unemployment claims soared to 3.3 million last week, most in history,"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cnn.com/2020/03/26/economy/unemployment-benefits-coronavirus/index.html>

16) CBS News(2020.3.25), "U.S. could lose 14 million jobs: Are we careening toward a depression?,"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cbsnews.com/news/gdp-may-sink-14-million-jobs-may-be-lost-is-this-another-depression/>

17) ABC News(2020.3.18), "Hospitality labor union projects 90% of members could lose jobs over coronaviru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abcnews.go.com/Business/hospitality-labor-union-projects-90-lose-jobs-coronavirus/story?id=69677732>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된 경우가 있다.<sup>18)</sup>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의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이미 미국에서 심각한 수준이었던 임금 불평등이 보다 더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코로나19의 영향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뿐만 아니라 직업 특성, 업무 및 가족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사회학자 테다 스카치폴(Theta Skocpol)의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소득 상위 20%와 나머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인터넷 접속이 쉬운 편이고 집에서도 업무와 일상의 공간 분리가 가능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무직, 전문직 등이 주로 상위 20%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80%는 경제적 여유가 없고 재택근무가 힘든 생산직, 서비스직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접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아 고용안정성과 당분간의 기대소득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위와 같은 소득의 위기는 코로나19 감염 등 갑작스러운 의료 응급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19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0%의 미국인들이 약 400달러(한화 약 50만 원)의 갑작스러운 의료 지출을 자신들의 임금과 저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sup>20)</sup>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점을 두고 보았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의 위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의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 The Washington Free Beacon(2020.3.24), "Harvard, Boasting \$40 Billion Endowment, Lays Off Dining Hall Workers Due to Coronaviru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freebeacon.com/latest-news/harvard-not-paying-all-workers-during-coronavirus-shutdown-despite-40-9b-endowment/>

19) Politico(2020.3.19), "Coronavirus Will Change the World Permanently, Here's How,"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0/03/19/coronavirus-effect-economy-life-society-analysis-covid-135579#econ>

20) The Washington Times(2020.3.18), "'Carnage': Millions face financial ruin as coronavirus infects U.S. economy,"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0/mar/18/coronavirus-infects-us-economy-millions-face-finan/>

##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대응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와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일련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2020년 3월 25일, 미국 상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원조·구호·경제안정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sup>21)22)</sup> 이후 하원 동의를 거쳐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서명하였다.<sup>23)</sup> 해당 법은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에 대한 대책 등을 사용처로 하여 2조 달러(한화로 약 2,465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법안이다(전반적인 사용처와 예산 내역은 표 1 참조).

<표 1>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구호·경제안정법안(CARES Act)의 예산 내역

|                             |                                      |                               |
|-----------------------------|--------------------------------------|-------------------------------|
| 총 예산<br>(2조 달러, 약 2,465조 원) | 개인*<br>(5,600억 달러, 약 691조 원)         | 현금 지급* (3,000억 달러, 약 370조 원)  |
|                             |                                      | 실업 급여* (2,600억 달러, 약 321조 원)  |
|                             | 소기업<br>(3,770억 달러, 약 464조 원)         | 신규 대출 (3,500억 달러, 약 431조 원)   |
|                             |                                      | 대출 탕감 (170억 달러, 약 21조 원)      |
|                             |                                      | 무상 보조 (100억 달러, 약 12조 원)      |
|                             | 중기업 및 특수 산업<br>(5,000억 달러, 약 617조 원) | 중기업 대출 (4,540억 달러, 약 560조 원)  |
|                             |                                      | 국방 및 항공 산업 (460억 달러, 약 57조 원) |
|                             | 주 및 지역 정부 (3,398억 달러, 약 418조 원)      |                               |
|                             | 공공보건 (1,535억 달러, 약 189조 원)           |                               |
|                             | 사회안전망 (260억 달러, 약 32조 원)             |                               |
| 교육 및 기타* (437억 달러, 약 53조 원) |                                      |                               |

주: \* 예산 산정 시 추정사항.

자료: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2020,” Retrieved April 2nd, 2020,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48/text>

21) NPR(2020.3.25), “READ: \$2 Trillion Coronavirus Relief Bill,”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npr.org/2020/03/25/820759545/read-2-trillion-coronavirus-relief-bill>

22) CNN(2020.3.26), “Senate approves historic \$2 trillion stimulus deal amid growing coronavirus fears,”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cnn.com/2020/03/25/politics/stimulus-senate-action-coronavirus/index.html>

23) NPR(2020.3.26), “What’s Inside The Senate’s \$2 Trillion Coronavirus Aid Package,” Retrieved on March 30th, 2020, <https://www.npr.org/2020/03/26/821457551/whats-inside-the-senate-s-2-trillion-coronavirus-aid-package>

먼저 연간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미국 성인들은 1인당 1,200달러(한화 약 130만 원)를 받게 되며, 부모들은 자녀 1명당 500달러(한화 약 60만 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다만 연간 개인 소득이 75,000달러(한화 약 9,1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보다는 적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으며, 연간 소득이 99,000달러(한화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2배로 산정되어 적용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예산은 3,000억 달러(한화 약 370조 원)로 책정되었다.<sup>24)</sup>

실직한 노동자들을 위한 직접적 대응으로는 주 정부가 제공하고 있었던 실업급여에 더하여 연방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3월 12일에 미국 노동부는 주 정부들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고용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중단하였거나 피고용인이 실제 감염, 감염의 우려나 가족에 대한 돌봄 등 다양한 건강, 안전 및 보안의 문제로 노동을 중단하였을 때 그 피고용인들이 퇴사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허용할 수 있다.<sup>25)</sup> 물론 실제 세부적인 내용은 주 정부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다수의 주들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어 실직자들이 적게는 주당 200달러(한화 약 24만 원)에서 많게는 주당 550달러(한화 약 66만 원)의 실업급여를 제공받고 있었다. 코로나19 관련 원조·구호·경제안정법안(CARES Act)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방정부가 7월 31일까지 최대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한화 약 720만 원)를 실직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한다.<sup>26)</sup> 파트타임 및 플랫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팬데믹 실업부조(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or PUA) 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에게도 2020년 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sup>27)</sup> 위

24) NPR(2020.3.26), "What's Inside The Senate's \$2 Trillion Coronavirus Aid Package," Retrieved on March 30th, 2020, <https://www.npr.org/2020/03/26/821457551/whats-inside-the-senate-s-2-trillion-coronavirus-aid-package>

25) US Department of Labor, "U.S. Department of Labor Announces New Guidance on Unemployment Insurance Flexibilities During COVID-19 Outbreak,"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eta/eta20200312-0>

26) The National Law Review(2020.3.29), "CARES Act Paycheck Protection Program," Retrieved on March 30th, 2020,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ares-act-paycheck-protection-program>

27) CNBC, "Are you newly eligible for unemployment insurance? Here's what to know," Retrieved on April 2nd, 2020, <https://www.cnbc.com/2020/04/01/are-you-newly-eligible-for->

항목에 대한 예산은 2,600억 달러(한화 약 321조 원)로 책정되었다.

보다 사업자들에 집중한 대책으로는 500인 미만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 대출원 마련(3,500억 달러, 한화 약 431조 원), 기존 대출 감경(17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 및 무상보조(grant) 자금(100억 달러, 한화 약 12조 원)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소기업들에는 급여보호 제도(Paycheck Protection Program) 명목으로 급여 관련 비용과 임대료를 위한 대출을 지원한다. 이때의 대출 한도는 월 평균 인건비의 2.5배로 최대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를 넘지 않는 수준이며, 6월 말까지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8주간의 임금 및 이자비용, 임대료, 공과금에 대하여 탕감(forgiveness)이 가능하다.<sup>28)</sup> 또한 해당 법안은 재무적 위기를 겪고 있는 500인 이상 10,000인 미만의 중기업(mid-sized corporations), 그리고 (예산이 가능할 경우) 비영리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 4,540억 달러(한화 약 560조 원), 국방 및 항공 산업에 460억 달러(한화 약 57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sup>29)</sup> 이때 중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기업들의 몸집과 임원들의 임금을 불리는 데 사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민주당의 우려가 있어, 임원의 임금수준에 따라 해당 임금을 대출상환 이후 1년간 동결하거나 삭감하도록 하는 조항과 대출상환 이후 일자리의 국내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을 2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sup>30)</sup> 위와 같은 조치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어 고용안정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급휴가가 보다 광범위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가족우선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안(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도 3월 중순에 통과되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질병이 있거나 본인이 질병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2주간 유

unemployment-insurance-heres-what-to-know.html

28) The National Law Review(2020.3.29), "CARES Act Paycheck Protection Program," Retrieved on March 30th, 2020,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ares-act-paycheck-protection-program>

29) The National Law Review(2020.3.29), "President Trump Signs Into Law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 Retrieved on March 30th, 2020,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president-trump-signs-law-coronavirus-aid-relief-and-economic-security-cares-act>

30) The New York Times(2020.3.26), "The Coronavirus Economy: When Washington Takes Over Business," Retrieved on March 30th, 2020, <https://www.npr.org/2020/03/26/821457551/whats-inside-the-senate-s-2-trillion-coronavirus-aid-package>

급병가(paid sick leave) 사용이 가능하며, 학교의 폐쇄나 돌봄노동을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12주간 유급휴가(paid leave) 사용이 가능하다.<sup>31)</sup> 이는 최초로 유급휴가가 미국 전역에 걸쳐 제공되는 사례가 된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정부 및 비영리기관, 그리고 500인 미만 사기업 고용주에게 유급휴가 사용 전까지 30일 이상 고용되었던 모든 노동자들이다. 이는 파트타임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포함한다.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2주간 통상적으로 받는 수준의 임금을 신고하여 이를 휴가 급여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받았던 평균 일당 임금을 신고하여 세금 공제액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sup>32)</sup> 다만 50인 미만의 소기업들은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유급휴가 제공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이는 사기업에 한하여 유급휴직이 완전히 강제되는 경우(50인 이상~500인 미만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전체 사기업 노동자들의 2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sup>33)</sup>

한편 노동조합들 또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측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항공업계 노조가 실직 또는 노동시간의 감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승무원노조(Association of Flight Attendants)는 911테러 이후 항공산업 구제금융과 정리해고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구제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를 설득하였고 항공산업 로비그룹(Airlines for America)에서도 구제금융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항공사들이 노동자들에게 강제 휴가를 통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이끌어냈다.<sup>34)</sup> 노동조합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31) CARES 법안에서 이때 병가인 경우 일 511달러를 한도로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 200달러를 한도로 통상 급여의 2/3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도가 설정되었다.

32) The New York Times(2020.3.19), "Who Qualifies for Paid Leave Under the New Coronavirus Law,"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nytimes.com/2020/03/19/upshot/coronavirus-paid-leave-guide.html>

33) The New York Times(2020.3.14), "There's a Giant Hole in Pelosi's Coronavirus Bill," Retrieved on March 26th, 2020, <https://www.nytimes.com/2020/03/14/opinion/coronavirus-pelosi-sick-leave.html>

34) CNBC(2020.3.27), "How airline workers won a \$32 billion lifeline in the contentious coronavirus relief bill," Retrieved on March 28th, 2020, <https://www.cnn.com/2020/03/27/coronavirus-relief-bill/index.html>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뉴욕 시와 그 인근 지역의 호텔업 노조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실직 노동자들에게 5개월간의 의료보험 비용 지급을 약속받는 결과로 이어졌다.<sup>35)</sup> 또한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택근무 선택권 없이 일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들의 건강과 위협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주와 와이오밍 주의 식료품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들 중 하나인 식품산업 연합노조 제7 지부(United Food & Commercial Workers Local 7)는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식품점 및 의약품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백만 달러(한화 약 12억 원)를 책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당 200달러(한화 약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36)</sup>

##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현재 중요한 문제인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KLI**

relief-bill-how-airline-workers-won-a-lifeline.html

35) Daily News(2020.3.19), "Five months of health insurance for NYC hotel workers laid off in coronavirus pandemic," Retrieved on March 28th, 2020, <https://www.nydailynews.com/coronavirus/ny-coronavirus-nyc-hotel-union-deal-20200320-dqbfkuxf6rd7fls4wydiojj6f4-story.html>

36) The Denver Post(2020.3.24), "Local grocery workers union plans \$1 million coronavirus emergency fund," Retrieved on March 28th, 2020, <https://www.denverpost.com/2020/03/24/grocery-workers-union-coronavirus-emergency-fund/>